

재가장기요양 수급자·보호자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쉽게 이해하기

1.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?

-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서입니다.
- 앞으로 내가 임종과정(회복이 어렵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)이 되었을 때,
-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지,
- 호스피스(완화의료)를 이용할지에 대한 나의 뜻을 미리 적어 두는 것입니다.
- 쉽게 말하면, “마지막 순간에 어떤 치료까지 받고 싶은지”
“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는 어디까지 원하는지”를
미리 정해 두는 종이 약속입니다.

2. ‘연명의료’는 무엇이고, 무엇이 계속되나요?

- 연명의료 예시(의향서에서 선택하게 되는 항목)
 -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
- 중요한 점!
연명의료를 “하지 않겠다 / 중단하겠다”라고 해도,
 -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, 물·영양 공급, 단순 산소 공급 등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- 즉, “치료를 아무 것도 안 한다”가 아니라,
고통은 덜어주되, 회복 가능성이 없는 무의미한 연장 치료는 줄이자는 선택입니다.

3. 언제, 어떻게 효력이 생기나요?

- 조건이 맞을 때만 적용됩니다.
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
“회생 가능성이 없고, 회복이 되지 않으며,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”
즉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할 때만 의향서 내용이 사용됩니다.
- 건강할 때 작성해 두고,
나중에 내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
→ 의사와 의료진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됩니다.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(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)에 등록되어야
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


4. 누가, 어디서, 어떻게 작성하나요?

- 작성 대상
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
- 작성 장소
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'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'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(일부 병원, 보건소, 복지관, 공공기관 등)
- 준비물
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작성 절차
 1. 1:1 상담 및 설명
연명의료제도, 호스피스, 의향서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듣습니다.
 2. 의향서 작성
연명의료 시행/중단 여부, 호스피스 이용 의향 등을 선택해 문서로 작성.
 3. 등록 및 보관
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→ 법적 효력 발생
 4. 변경·철회 가능
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다시 방문해서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5. 왜 미리 작성하면 좋을까요?

-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
가족들이 "어떻게 해야 할지" 몰라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줄여줍니다.
- 의료진도 환자의 뜻에 맞는 치료 방향을 정하기 쉬워집니다.
- 고통만 길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고, 보다 편안한 마무리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6. 자주 하는 질문 (Q&A 요약)

- Q1. 지금은 건강한데, 미리 써도 되나요?
→ 네.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Q2.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?
→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면 변경·철회가 가능합니다.
- Q3. 가족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나요?
→ 안 됩니다.
 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
 - 만약 의향서가 없고,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
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 진술·가족 전원 합의등으로 연명의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.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설명 내용

본인은 _____로부터 상기 사항에 대해 구두 및 문서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 : _____년 _____월 _____일 수급자(보호자) 성명 : _____ (서명/도장)